

# 부활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70인 제자 -부활주일 메시지-

창세기 22:10-12, 요한복음 11:25-26

정윤돈 목사님

- \* 창22:10-12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 \* 요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것은 부활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부활의 모든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부활을 믿을 때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성도들이 틀리게 대답하는 질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으로 계실까요? 육으로 계실까요?’라는 질문이다.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일까요?’라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육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영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부활체로 계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활체란,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 새로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도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체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보좌의 능력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만족하지 못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소생은 30 살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대로 30 살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죽는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영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말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1 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인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이단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 중 하나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승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주장했던 영지주의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으로 다시 오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신천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증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다. 끝없는 우주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천국의 비밀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부활도 믿음의 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국, 부활, 우리의 영생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 드린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때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망대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저 깊은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 1. 첫 번째로는 가상철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상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시는 동안 말씀하신 7가지를 의미한다.

- 1) 십자가 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 누가복음 23 장 34 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자기 옷을 두고 제비를 뽑고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드린 용서의 기도이다. 사실 주님은 남을 위해 기도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기의 생살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를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적인 모습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고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한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한 어린 상태이다. 처음에는 ‘이것 잘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신앙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한 가지로 감사하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구원 받고 예수를 믿으면 순교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이 원래 기독교이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
- 2) 제 2언은 누가복음 23 장 43 절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신 구원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주님은 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셨다.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줘 봐하면서 비꼬았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우리는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저 사람은 아주 죄도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좋은 일만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3) 다음으로 제 3언은 부탁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 장 26 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씀이다. 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다. 이후 사도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다고 한다.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거기까지 모시고 갔고, 에베소에서 마리아도 여생을 마쳤다고 보고 있다. 예수님은 육적인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끝까지 했다. 복음가진 우리들은 가족, 사회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제 4언은 고뇌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7 장 46 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십자가에 달려계시는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다. 주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사흘 동안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 5) 제 5언은 고통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 장 28 에 “내가 목마르다”이다. 이때 주님은 벌써 6 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려계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주님의 이 타는 목마름도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지옥은 최악의 목마름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복음적인 미소가 있다. 어떤 분은 얼굴에 짜증, 불신이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했다. 내 고통,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것 같은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자이기를 바란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자가 아니다.
- 6) 제 6언은 승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 장 30 절에 “다 이루었다”이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

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지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떤 분은 '모든 문제 끝'하고 나서도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것을 믿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의 문제도 문제가 아닌 줄을 믿기를 바란다.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매일 기도를 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런 사람은 불신자들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현장의 빛의 망대가 된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삼고 빛의 망대가 되기를 축원드린다. 내 안에 등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모든 염려, 문제를 주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오직 그리스도에 기준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몸, 가정, 현장, 경제도 살아나게 된다.

7) 마지막으로 제 7언은 소망의 말씀으로 누기복음 23 장 46 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이다. 이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이 고백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담고 있다. 가상철인을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이 가상철인 뿐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답들이 담겨 있다. 십자가는 용서, 안내, 순종, 피, 눈물, 땀, 오래 참음이다.

## 2.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부활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1) 먼저 부활의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다. 우리는 이 주장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1) 첫 번째 주장은 기절설이다.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 도망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라고 한다. 요한복음 19 장 34 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절해서 눈을 떴다 하더라도 온몸은 세마포에 감겨 있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혔었다. 그러면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동굴무덤에서 나오려면 기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굴은 약 6톤의 돌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만약 동굴의 돌을 밀고 나왔다 하더라도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즉, 기절설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도난설이다. 도난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숨겼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10 명이 순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평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모두 순교하였다. ② 다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면서 "여기 봐라, 시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난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3) 환상설이다. 환상설이란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 일 동안 11 번 나타내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 장 6 절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환상설도 성립될 수 없다.

(4) 또 다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면 100년 이전 인물은 그 누구도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 다음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부활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히브리서 11 장 19 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약의 히브리서 제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살려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을 미리 보여 준 사건이다. 요나서 1 장 17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라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부활은 수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부활은 원죄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이다.

(3)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4) 부활은 창세기 3 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이다. 즉, 부활은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하더라도 아무 관계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5)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까지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그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7)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현장의 영적플랫폼, 복음의 파수망대, 말씀의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이 70 인 제자이다.

(8) 또한 너무 감사한 이유는 부활은 사망, 사탄, 지옥의 권세를 박살 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복음 중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주님의 부활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평생 비전은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참된 부활의 복음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24 시간 묵상하고 증거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 앞에서 3.9.3 기도에 집중한다면 237 치유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현장에서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를 위하여 조금만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현장에 복음과 부활의 일천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이 부활의 증거를 전달하는 부활의 망대요,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와 세례식을 받은 귀한 램넌트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천만 배의 축복을 증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